

항공업계, 수요 늘었지만 中 노선 없이는 ‘반쪽짜리 회복’

무비자 입국 日 여객 수요에 동남아 여행 등 겨울관광 급증

中 입출국 방역 완화 없이는 국제선 회복 기대할 수 없어

팬데믹 방역 완화와 무비자 관광 수요 증가로 겨울 관광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다. 이에 국내 항공사들의 여객 실적 회복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여객 회복세에도 코로나19 이전만큼의 수요에는 턱없이 미치지 못해 국내 항공사들의 근심이 깊다. ‘중국 노선 활성화’ 없이는 ‘항공 정상화’를 이룰 수 없다는 게 항공업계의 중론이다.

1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일본 여객 수요의 폭발적인 증가와 동남아 여행 선호 분위기로 4분기 여객 수요가 코로나19 확산 이후 가장 활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1일 국토교통부 항공정보 포털시스템 실시간통계에 의하면 11월 국제선



북적이는 일본 도쿄 시내의 모습 / 독자제공

항공 여객 수는 308만1338명으로 집계됐다. 10월 252만2903명보다 22.13% 늘어난 수준이다.

지난달 중순 인천국제공항공사 인공항을 이용한 여객이 10만1404명으로 잠정 집계되면서 기존 예측보다 빠르게 일일 여객 10만명을 달성한 데 이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이는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인 2019년 11월 여객수(696만4045명)의 약 45%에 이른다.

특히 일본 정부가 무비자 입국을 허용한 이후 인천공항을 이용해 일본으로 출국한 여객 수는 무비자 입국 전과 비교해 4배 가까이 증가해 겨울 일본 여행의 인기를 실감하게 했다. 일본의 무비자 여행 허용으로 252만여명이 지난 10월에 일본을 찾았고, 11월에도 300만명이 일본을 방문했다.

‘겨울 일본 여행 성수기’ 바람을 타기 위해 국내 항공사들의 증편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다만, 일본의 현지 인력 부족이 증편 제한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한 저가항공사 관계자는 “일본 수요가 더 있을 걸로 보여 증편을 알아보고 있지만 현지 상황 때문에 인기 도시 위주로 무작정 늘릴 수도 없는 상황”이라며 “주요 도시는 물론 소도시 쪽으로도 증편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에어부산은 지난 30일 오전 부산에서 삿포로로 운항하는 BX182편 운항을 시작으로 부산~삿포로 노선 운항 재개에 나섰다. 이날 운항편의 탑승객은 162명으로 83%의 탑승률을 기록했다. 에어부산 관계자는 “장기간 운항이 중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준수한 탑승률을 기록한 것은 본격적인 일본 여행 재개와 삿포로 여행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부산~후쿠오카 노선은 매일 3회 운항하고, 8일부터는 매일 왕복 4회로 운항 횟수를 늘린다. 또한 9일부터 부산~나리타 노선은 매일 왕복 1회로 재운항에 나선 예정이다.

제주항공은 인천~오키나와 노선을 매일 운항한다. 코로나19로 2020년 3월 운항을 중단한지 2년 9개월여만이다.

대형항공사인 아시아나항공도 일본 노선 증편으로 탑승률이 높아졌다. 아시아나항공의 인천~나리타 노선 탑승률은 지난 9월 58%였는데, 11월에는 85%로 큰 폭으로 상승했다. 현재 아시아나항공의 일본 노선 주간 운항률은 37.1%(2019년 11월 28일~12월 4일 기준)에 이른다. 아시아나항공은 “2019년 당시 143편이 운항했다면, 지금은 53편이 운항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일본 여객 수요 회복은 이어질 것 같다”며 “다만, 중국이 입출국 방역을 완화하지 않는 이상 코로나19 이전의 국제선 노선 회복을 기대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허정윤 기자 zelkova@metroseoul.co.kr



유튜브(메트로신문) 동영상 제공



현대차그룹, 英서 ‘올해의 車회사·인기車’

탐기어 어워즈서 2개부문 수상 ‘기아’, ‘N 비전 74’ 각각 선정

현대자동차그룹이 영국 유력 자동차 전문 매체 탐기어 주판 ‘2022 탐기어 어워즈’에서 ‘올해의 인기 차’와 ‘올해의 자동차회사’ 등 2개 부문을 수상했다.

1일 현대차그룹에 따르면 영국 BBC 탐기어 매거진은 현대자동차의 N 비전 74를 올해의 인기 차로, 기아를 올해의 자동차회사로 선정했다.

N 비전 74가 수상한 ‘올해의 인기 차’는 과감한 기술적 혁신으로 눈길을 사로잡으며 많은 인기를 얻은 제품에 수여하는 상이다.

탐기어는 “N 비전 74를 통해 현대차



현대자동차 N의 N 비전 74 / 현대차그룹

의 과거 디자인과 미래 고성능차 개발에 대한 추진력을 엿볼 수 있었다”며 “현대차가 N 비전 74를 통해 한국 자동차 브랜드의 자신감을 보여줬다”고 선정 이유를 설명했다.

N 비전 74는 수소 하이브리드 롤링랩(움직이는 연구소) 모델이다. 롤링랩

이란 레이싱 모델용 고성능 기술을 대중 모델에 적용하기 전 검증하는 단계에서 제작하는 중간 단계 모델이다. N 비전 74는 1974년 포니 쿠퍼 콘셉트에서 영감을 받아 디자인됐으며 배터리 모터와 수소연료전지를 결합한 하이브리드 시스템으로 최고출력 500kW, 최대토크 900Nm, 최고시속 250km, 1회 충전시 주행 거리 600km 등 서로 다른 두 개의 동력원이 최대한의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개발됐다.

올해의 자동차회사로 선정된 기아는 유럽에서 EV6 GT를 비롯한 다양한 친환경 모델을 출시하며 성공적인 시장 반응을 이끌어 냈다는 평가를 받았다.

/양성운 기자 ysw@

삼성전자, IPTV에도 HDR10+ 확대 적용

KT 신규 셋톱박스에 도입 애플TV 4K·앱에서도 지원

IPTV와 게임도 HDR 10+를 속속 채용하며 고화질 영상 표준을 확대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KT와 엔비디아, 아마존 등에 HDR10+를 제공하게 됐다고 1일 밝혔다.

HDR10+는 삼성전자가 주도하는 고화질 영상 표준 기술이다. 각 장면마다

밝기와 명암비를 최적화해 영상의 입체감을 높이고 정확한 색 표현을 지원한다. 올 초 CES2022에서 HDR10+ 게이밍 전용 규격을 발표하고 올해 출시한 TV와 모니터에 적용한 바 있다.

먼저 KT는 내년에도 새로 도입하는 신규 셋톱박스에 HDR10+를 적용한다. 또 지난 10월 발표한 애플TV 4K와 삼성전자 TV에 내장한 애플TV 앱에서도 HDR10+를 지원하게 된다.

/김재용 기자 juk@

LS전선아시아 베트남 호찌민시에 UTP 설비증설 완료

LS전선아시아가 랜 케이블(UTP) 생산량을 늘릴 수 있게 됐다.

LS전선아시아는 베트남 호찌민시에 UTP 설비 증설을 완료했다고 1일 밝혔다. 베트남 UTP 설비에는 68억원이 투자돼 생산량을 15% 이상 늘릴 것으로 예상된다. 노후된 1기가급 케이블 설비를 축소하는 대신 10기가급을 확충하며 고부가가치 제품 비중도 늘렸다.

UTP 케이블은 짧은 거리 통신망 연결에 쓰이며, 미주 지역이 전세계 수요 40% 이상을 차지한다.

최근 미국 정부 인프라 투자 확대와 정보화 진행 등으로 LS전선아시아도 생산량 80% 이상을 미주 지역으로 수출하고 있다. 이를 통해 매출 증가 등 실적 개선도 기대된다.

/김재용 기자 juk@

최정우 회장, 호주서 친환경 미래사업 논의

최정우 포스코그룹 회장이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를 만나 친환경 미래사업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1일(현지 시간) 호주 캔버라 국회의사당에서 이뤄진 이번 만남은 최 회장이 앨버니지 총리에게 포스코그룹의 호주 사업현황과 향후 투자계획을 직접 설명하며 정부의 적극적인 협력을 이끌어내기 위해 마련됐다. 최 회장은 지난 달 30일 시드니에서 개최된 제43차 한국-호주 경제협력위원회에 한국 측 위원장으로 참석하기도 했다.

최 회장은 이날 면담에서 “포스코그룹은 철강 생산시 이산화탄소 대신 물을 배출하는 수소환원제철 개발에 매진하고 있다”며 “수소환원제철에 필수적인 수소를 확보하기 위해 호주를 가장 중요한 투자대상 국가로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 기존 철강 원료뿐 아니라 재생에너지, 수소, 그린스틸

에 이르기까지 호주에서의 투자 분야와 규모를 더욱 확대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구체적으로 포스코그룹은 태양광, 풍력 등 경쟁력 있는 대규모 재생에너지를 바탕으로 한 그린수소를 생산하고, 이를 기반으로 철광석을 가공한 원료인 HBI(Hot Briquetted Iron)를 생산한다는 계획이다. 나아가 포스코 고유의 수소환원제철 기술인 HyREX를 적용하여 철강 반제품인 슬라브(Slab) 생산까지 확대하고, 호주에서 생산한 그린수소는 암모니아로 제조하여 전세계로 공급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포스코그룹은 현지 파트너사들과 함께 재생에너지, 수전해 등 수소생산 분야에 280억 달러, 그린스틸 분야에 120억 달러 등 총 400억 달러(약 52조 원)를 2040년까지 투자할 계획이다.

/양성운 기자

학교 가는 ‘LG 클로이’ 디지털 교육 지원

LG전자 경북 수심여개 학교에 공급 장애물 회피 자율주행기능 등 갖춰

LG 클로이 로봇이 학교 교육까지 지원한다.

LG전자는 경상북도 수심여개 학교에 LG 클로이 가이드봇을 공급한다고 12월 1일 밝혔다.

클로이가 교육 목적으로 학교에 공급되는 것은 처음이다. 지난 10월 경북 구미시 사곡고등학교를 시작으로 공급 중이다.

학교에 공급하는 LG 클로이 가이드봇은 ▲제품 앞뒤 27형 터치 디스플레이 ▲인공지능(AI) 기반으로 장애물을 스스로 회피하는 자율주행 기능 등을 갖췄다.

주로 디지털 교육에 활용할 예정이다. 로봇을 제어하는 앱을 만들어 로봇을 구동하거나 로봇 홈 화면을 원하는 대로 재구성해볼 수 있다. 학생들이 제작한 프로그래밍 결과물은 콘텐츠 관리자 사이트에 올려 로봇에 손쉽게 적용할 수 있다.

학생들이 직접 만든 영상이나 이미지 콘텐츠를 로봇 디스플레이에 상영하는



경북 구미시 사곡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이 LG 클로이 가이드봇을 체험하고 있다.

등 교육 활동에서 학생들의 참여와 흥미를 높이는 데도 사용할 수 있다. 학교장 인사말, 우수학교 연혁, 공지사항 및 주간 식단표 안내 등 각종 콘텐츠를 탑재해 방문객과 구성원에게 알리는 데도 활용된다.

LG전자는 로봇 공급 이후에도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교육 관련 콘텐츠 및 기능을 지속 업데이트할 예정이다.

/김재용 기자